
저자 (Authors)	임동혁, 김용대, 김현
출처 (Source)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2015.11, 380-380(1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직업환경의학회 The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565555
APA Style	임동혁, 김용대, 김현 (2015).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작업시 자외선차단제 사용과 피부 노화의 연관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80-380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11.48.46.*** 2020/04/29 15:3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작업시 자외선차단제 사용과 피부 노화의 연관성

임동혁¹⁾ · 김용대^{1),2)} · 김현^{1),2)}

충북대학교병원 농업안전보건센터¹⁾,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²⁾

1. 연구 목적

더위와 강한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하는 농업인은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자외선에 의한 피부노화 과정인 광노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광노화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표피가 얇아져 주름을 발생시키고, 멜라닌 세포가 크고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게 되어 색소침착을 일으키며, 피부탄력을 유지시키는 피부섬유를 변성시켜 피부탄력을 소실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조사에서는 개인 안면부위의 모공, 주름, 색소침착, 피부톤 등을 측정하였고 농작업시 자외선 차단 현황과 이에 따른 피부노화지표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 대상자는 2015년 2월과 8월에 충북대학교병원 농업안전보건센터가 모집한 충북지역 거주 농업인 523명(남자 245명, 여자 278명)이었다. 농업인들의 자외선차단제(썬크림) 사용 현황과 이들의 광노화 관련 지표인 모공, 주름, 색소침착, 피지톤을 피부측정기(JANUS-II, Pie, Korea)를 이용하여 검사하였다. 검사결과는 안면 면적을 100%로 보았을 때 해당 지표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로 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조사 대상자인 농업인의 평균 연령은 65.6 ± 11.2 세였고, 남자 65.0 ± 11.0 세, 여자 66.1 ± 11.4 세였다. 농작업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전체의 25.1%였고,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은 74.9%로 조사되었다. 농업인중 노지 종사자는 395명(81.8%), 하우스 종사자는 88명(18.2%)이었다. 노지 농업인의 피부 상태를 측정한 결과,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는 농업인에서는 모공 62.4%, 주름 31.6%, 색소침착 41.4%, 피부톤 53.1%였고,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에서는 모공 66.9%, 주름 40.1%, 색소침착 47.8%, 피부톤 47.5%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미만의 연령층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모공, 주름, 색소침착, 피부톤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4. 고찰

이러한 결과는 농작업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은 사용하는 농업인에 비해 모공, 주름, 색소의 단위면적당 밀도가 높고, 피부톤이 더 어두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이 햇빛 자외선에 의한 피부노화와 색소침착을 줄여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발표자: 임동혁 (043-268-2857, ydh@cbu.ac.kr)